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제 2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10월10일(목)

장소 : 위원회실

심사된안건

1.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14시00분 개의)

○의정담당 장경원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들 다 오셔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 의정팀장 장경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개최되는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는 국외연수 제도의 기본 원칙 및 절차에 의한 내실 있는 의원 공무국외출장 제도 운영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참석하신 위원님들 소개를 시작으로 지난 회의에서 의결한 중국 조장시 방문에 대한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먼저 참석하신 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설영호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설영호 반갑습니다.

○의정담당 장경원 김운정 인천중부녹색어머니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양근 대한적십자봉사회 동구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요한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선희 동산중학교 교장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정자 서림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서림초등학교교장 이선희 안녕하세요.

○의정담당 장경원 윤재실 기획총무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참고로 위원장님께서는 오늘 불가피한 일정으로 불참하셔서 오늘 심사위원회 회의는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도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설영호** 갑작스럽게 오늘 위원장님이 안 나오신 관계로 제가 진행하게 됐다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공무국외출장보고서 건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적 위원 일곱 명 중 총 여섯 분 위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동구의회 윤재실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중국 조장시 방문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윤재실** 안녕하십니까? 동구의회 기획총무위원장 윤재실 인사드립니다.

먼저 신임을 잘 해 주셔서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는 최근 발생한 일부 지방의회의 외유성 국외연수 등 불미스러운 사례 발생과 관련하여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지난 3월 개정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0조에 따라 보고드리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내용 보고 전에 먼저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영상자료를 간단하게 만들어봤습니다.

그거 먼저 보시고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3분 동영상 상영개시)

(14시05분 동영상 상영종료)

어때요, 위원님들?

잘 만들었죠?

그러면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장 배경입니다.

이번에 추진한 공무국외출장은 조장시 설성구 인민대표회의와의 우호교류 체결을 위한 사전 답사를 실시하고 중국 내 대표 교육도시인 중국 조장시의 교육 관련 특화사업을 시찰하기 위해 추진하였습니다.

방문 기간은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총 2박 3일로 출장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였으며 교육 분야 관련 상임위원회인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2명과 의회사무과 직원 2명 총 4명을 방문단으로 구성하는 등 최소 인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정부 방문 관련 주요 내용입니다.

1일차인 8월 14일에는 조장시, 2일차인 8월 15일에는 조장시 설성구를 방문하여 정부 및 인민대표대회 관계자와 함께 양 도시 현황 및 주요 정책 등에 대해 공유하고 양국 도시 의회 간 우호교류 의향서 체결 등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 분야 시찰 주요 내용입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 중 교육 분야 시찰을 위해 총 4개의 교육기관을 방문하였습니다.

먼저 2일차인 8월 15일에는 가항계몽유치원, 룡탄실험학교 및 조장시 시립신초등학교, 3일차에는 조장시 실험초등학교를 방문하여 학교 내 학습시설, 편의시설 등 주요 시설 운영 현황과 특화사업 추진 현황 등을 시찰하고 교육기관 관계자와 교육 분야 관련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찰 결과 및 시사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장시 설성구와 우호교류 논의에 대한 사항입니다.

조장시 설성구는 유교문화의 발원지로서 한국의 전통 유교문화와 기본적 동질성을 보유하며 항일애국운동의 거점으로써 유사성이 존재하는 도시로서 인천 동구와 교육, 경제, 문화, 예술 분야 등 많은 분야에서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는 중국의 명문학교, 각종 시범학교, 특성화학교를 설립·운영하는 등 중국의 인성교육과 특화교육에 선도적 역할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선정된 우리 동구와는 아동·청소년의 권리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는 교육정책 추진에 있어서 매우 유사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이번 동구의회의 중국 방문을 시작으로 향후 양 도시 의회 간 우호교류를 체결하고 양 도시 지방정부 간 교류, 학교, 기업, 문화예술단체 등 민관단체 교류로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면 교육특화 정책을 포함한 강점 공유는 물론 양 도시 간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교육 분야 시찰 결과입니다.

이번 중국 방문 일정 중 동구의회 대표단은 중국 조장시의 특성화학교를 위주로 총 4개의 학교기관을 방문하였습니다.

중국의 교육 현실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과 다르게 이번에 방문한 중국 교육기관은 시설 면에서도 교육의 질적 수준에서도 최고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교육시설의 경우 회화실, 공작실, 서예실, 과학관, 도서관 등 별도의 전문화된 학습공간과 3D프린트, 전자칠판 등 IT 기술을 활용한 교자재를 제공하여 학생의 학습 참여도 및 집중도 향상을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교육 활동에 있어서도 지식 위주의 주입식 교육보다 전통 예절교육, 유교명저 낭송, 인문, 서예 등 참여방식의 인성교육을 도입하여 전통문화와 혁신교육을 접목한 교육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분야에 대한 시사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국외출장 교육 분야 시찰에 있어서 왜 한국보다 교육 수준이 낮은 중국으로 가느냐라는 의문점이 아마 생기셨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국제학업성취도평가 순위에서도 한국은 모든 분야에서 최상위권, 중국은 중위권으로 한국이 절대우위를 보이는 상황에서 저 역시 조장시 방문 전에 이와 같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중국 조장시 출장에서 방문한 특성화학교를 볼 때는 이런 인식들은 시대착오적인 생각임을 깨달았습니다.

중국의 일반 공교육의 수준은 통계 자료와 유사하더라도 특성화학교의 수준은 시설, 교육방식, 기자재 등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특성화학교를 시작으로 앞으로 교육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와 실험적인 교육방식 도입이 중국에서 지속, 확산되면 현재의 한국과 중국의 교육 수준의 격차는 더욱 좁혀지거나 역전될 것으로 예측 가능한 선진화된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에 동구에서는 중국 교육 수준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중국에서 추진하는 실험적 교육사업 등에 대한 다양한 교류활동을 통해 지역 인재양성에 대한 새로운 프레임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국가 재정 여건상 전국 모든 학교에 최신학교 시설 및 전문 기자재를 도입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지만 8개 초교, 3개 중학교, 4개 고등학교 등 비교적 적은 수의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동구에서는 교육환경개선기금을 활용하여 일부 실험적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내 학교별 특정분야에 대한 기자재 구입비용 지원, 전시관, 과학체험관 운영비 지원 등 교육 특화사업에 대한 시범실시를 통해 동구 관내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인천 동구가 교육선진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현재 한국의 교육정책과 동구의 교육 관련 특화사업은 대부분 학업성취도 향상 및 취업 진로에 대한 사항으로 편중된 경향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 추진으로 전반적인 학업 성취도 향상과 미래 육성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긍정적인 면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인성 교육이 배제된 과도한 지식 습득과 경쟁 위주의 과열된 교육 방식만 강조하는 교육 정책으로 다양한 사회문제가 일정 부분 대두되고 있는 것도 실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교육부에서 발표한 '19년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도 학교폭력 피해 및 차별 경험 등이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집단 따돌림이나 사이버 괴롭힘 같은 정서적 폭력이 빠르게 증가하는 등 지식 위주 교육방식에 대한 문제점이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국내 교육에서 소홀히 되고 있는 인성교육의 부재에 대한 결과로 판단되며 유교 문화의 발원지인 산동성 조장시 내 학교에서 실시하는 유교문화 관

런 교육, 인문교육, 서예교육에 대한 학생 간 교류활동과 벤치마킹 등으로 한국형 또는 동구형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인격과 지혜를 겸비한 동구의 신지식인 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GDP 세계 2위인 경제대국으로 1992년 수교 이래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활발히 교류하고 있는 국가이며 앞으로도 교류의 범위와 종류는 크게 확장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입니다.

이번 우호교류를 계기로 중국 홈스테이, 중국어 학습 등 교류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중국 문화와 중국어에 대한 관내 학생들의 접근성과 관심도를 향상시켜 글로벌 인재로 양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이번에 진행한 중국 조장시 교육 분야시찰 결과와 관련하여 관내 초등학교 학생 대상으로 중국 등 외국 홈스테이 및 국제문화체험단 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청소년 국제교류활동 지원사업 하나, 둘, 셋, 네 가지를 지금 과 부서에 검토해 달라고 보내놓은 상태이고요.

그중에 첫 번째가 관내 초등학교 학생 대상으로 중국 등 외국 홈스테이 및 국제문화체험단 운영 등이 하나고 그다음에 제2외국어 교육지원에 관한 사업이 하나고요.

그다음에 전통문화예절학교 운영 그것은 인성교육 부분입니다.

그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1인 1악기 제도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 하나 이렇게 해서 네 가지 분야를 부서에 지금 검토를 해 달라고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교육기금 및 자체 예산을 활용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인 동구청 교육 아동청소년실에 제안하는 등 공무국외출장 결과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최근 일부 지자체의 불미스러운 사례와 대비해 우호교류 및 교육 분야 시찰에 대한 성과뿐만 아니라 의원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을 보여줬다는 긍정적인 언론보도가 배포되는 등 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이 의회 공무국외출장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설영호** 윤재실 기획총무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멀리 다녀 오시느라고 하여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포괄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다 듣기는 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윤재실 기획총무위원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저번, 이런 또 옆에 서포트하시는 분들도 적게 가셨지만 그래도 훌륭하게 잘 하고 오신 것 같아서 하여간 격려의 말씀드리고 우리 위원님들, 혹시 질의 사항들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산중학교교장 이선희 이제 여기에 한국박물관이 처음으로 설립됐다고 그러는데 특별히 우리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기획총무위원장 윤재실 특별히 우리나라하고 관계가 있지는 않아요.

○동산중학교교장 이선희 박물관이...

○기획총무위원장 윤재실 맞습니다.

○서림초등학교교장 이정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홈스테이 중국 교류 초등학교 그다음에 제2외국어를 지원해 준다 그다음에 전통문화예술 인성교육, 그다음에 1인 1악기 이런 것을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초등학교에서 특별예산을 지원해 주실 예정인가요?

○기획총무위원장 윤재실 사실 이번에 저희가 교육환경개선기금으로 동구가 지금 현재 시설배치비로 사용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간접비로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는 검토를 했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가서 중국에 특화된 사업들, 교육프로그램 사업들을 보고 왔고 그중에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학교 자체에 1인 1악기 해서 아이들 한 사람씩 자기가 원하는 반에 들어가서 악기를 계속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특성화된 반이 있고 그다음에 다른 또 다도 같은 것도 있고 서예 같은 것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학교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동구는 이것을 학교 자체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한 부분, 부분을 학교마다 특화시켜서 한다고 하면 학교에...

○동산중학교교장 이선희 강사를 파견한다든가.

○기획총무위원장 윤재실 그렇죠, 강사를 파견...

과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사를 파견하고 강사의 강사비를 과에서 주는 거지 강사비를 주라고 학교에 돈을 주는 것은 아직은, 규제가 완화되기 전에는 할 수가 없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 어떻겠냐라고 교육아동청소년실에 제안을 해 봤어요.

그래서 이제 검토를 받아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교육환경개선기금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구청장님께서 딱히 어떤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게 뭔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것을 저는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정 기금으로 이런 부분들을 쓸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과에 검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서림초등학교교장 이정자 확정이 되면 이게 학교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잖아요.

동구 관내에 있는 교장선생님이나 그런 분들한테 한번 이런 사업을 벌일 때 이런 취지다 하고 오셔서 한번쯤은 이렇게 이런 홍보라든가 그다음에 기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하셔서 공문만 딱 보내는 것보다는 이런 취지를 우리가 하고 각 학교마다 특성화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학교가 원하는 것을 협의 충분히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통예술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데 인성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애들이 다도라든가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또 동구청에서 지원해 주면 좀 더 내실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학교들마다 각각의 특성화가 지금 다 있으니까 그거에서 동구에서 더 지원을 해 줘서 강사를 더 보내주고 하면 더 내실 있고 아마 동구하고 사업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윤재실 가장 좋은 빠른 효과를 얻으려면 청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돼요.

의회에서 이렇게 갔다 왔는데 이거 들어보니 괜찮더라,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사업은 집행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이쪽에서 자꾸 푸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는 보고 와서 제안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보고를 통해서 제가 이런 사업들을 했다고, 제안을 했다고 했으니 돌아가시면 청장님한테 또는 교육아동청소년실에 문의를 하세요, 들어보니 좋더라.

그래서 돈은 직접 안 쥐도 좋으니 강사를 파견해서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교육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인천중부녹색어머니회장 김윤정 제일 빠른 방법은 위원장님이 이런 보고서 같은 것을 돌리실 때 각 학교 동구에 있는 교장선생님들 미팅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구청장님하고.

○기획총무위원장 윤재실 그러니까 구청장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를 좀 설명을 해 달라고 하면 가서 하는데 제가 막 교장선생님들을 모셔놓고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청장님이 사업부서에서 이거 안 돼 이러면 못하는 거잖아요.

○인천중부녹색어머니회장 김윤정 일단 다들 이렇게 모여계시니까 안 된다는 말씀은 못하지 않으실까요?

○기획총무위원장 윤재실 그러면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세요, 가서 할게요.

○동산중학교교장 이선희 이제 학교 도서관에 사서를 보내주셨잖아요.

정말 도서관이 몰라보게 달라졌거든요.

확실히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는데 저희 관내에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셔서 지원을 해 주시면, 교장선생님 말씀에 그것인 것 같아요.

너희가 뭘 하고 싶고 어떤 게 특화되어 있고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면 훨씬 더 단시간 내에 효과가 있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려서 받아들였거든요.

○기획총무위원장 **윤재실** 예, 저도 알아들었고 제가 제안사업 네 가지를 했지만 이거 외에 다른 게 있다면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설영호**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여쭙보겠는데 저희 교장선생님 두 분이 실질적으로 학교하고 관련된 것을 여쭙봤는데 저는 어떤 학교의 행정적인 것이나 시스템 자체는 밖에 있는 사람이라 외적인 것 한번 여쭙보고 싶어요.

뭐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항상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안전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등·하교 때 애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등교하거나 하교할 때 그런 시스템 같은 것도 한번 들여다보셨나 해서 여쭙습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윤재실** 등·하교?

등·하교에 대한 시스템은 들여다보지 않고 가면서 중국이...

○위원장직무대리 **설영호** 안전이나 이런 쪽에 우리처럼 우리는 지금 애들한테 너무 힘든 것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뭘 가르치고 있냐 하면 모르는 사람하고 말 섞지 마라, 모르는 사람, 뭐든지 엄마, 아빠 아니면 상대하지 말라는 것으로 역으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맨날 인성을 얘기하고 막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너무 사람이 사람을 자꾸 경계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서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혹시 중국에 물론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조장시의 설성구라는 곳은 그런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있는가 해서 한번 여쭙보는 것입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윤재실** 거기까지는.

○위원장직무대리 **설영호** 제가 너무 무리한 것을 여쭙봤나, 죄송합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윤재실** 거기까지는 제가 이제 파악하지 못했고요.

사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우리나라 사회구조잖아요.

지금 어른들이 애들을 하교하는 애들 데리고 아동유괴, 아동폭력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엄마, 부모들이 아동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말아라, 이런 것을 계속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은 학교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위원장직무대리 **설영호** 제가 그런 것들이 안타까워서 여쭙보는 거고 사실 우리 어떤 특징상 한정돼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전체 어른들의 책임이라고 저도 공감을 하거든요.

일단 한번 여쭙봤고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윤재실** 그리고 저희 갈 때 여기 계신 분하고 저기 의정팀장님 하고 같이 갔어요, 갔는데 중국에 다른 게, 우리나라와 다른 게 신호체계가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 최정균 차관님이 보고 온 것을, 느낀 점을 얘기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줬으면 좋겠어요.

○위원장직무대리 **설영호** 그래요.

○주무관 **최정균** 의회사무과 최정균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약간 의견이 일치하는데요.

저희 교통체계에서는 빨간불, 노란불, 파란불만 있어서 불이 변하면 기다렸다가 진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중국 교통체계는 신호등이 남아 있는 예상, 60초가 남아있다면 초까지 그게 표시가 되더라고요.

예측출발을 하지 않고 맞춰서 느긋하게 기다렸다가 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계가 갖춰져 있더라고요.

그게 교통사고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저감되는 효과가 있었대요.

그런 부분도 동구청은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도입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인천중부녹색어머니회장 **김윤정** 운전자가 보는 신호들이 60초가.

○주무관 **최정균** 보행자 있잖아요, 운전자가.

사실 조심해야 될 사람들은 운전자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기획총무위원장 **윤재실** 그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우리는 이제 어린이교통공원이 있잖아요.

교통공원에 견학가야지만 교통의 시스템이나 흐름에 대한 것을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떤 유치원에 갔나요?

그때 유치원 복도에 그런 것들로 짝 되어 있어요, 그림으로 되어 있어서 애들이 시스템을 알 수 있도록 해 놨더라고요.

○인천중부녹색어머니회장 **김윤정** 그것은 유치원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 유치원이 있고 안 되어 있는 유치원이 있어요.

교통공원이 있는 구역이 있고, 저희 인천도.

없는 구역도 있어요.

그런데 동구, 지금 교통공원을 누르고 있는데 아직 예산이 안 집행돼서.

저희 녹색에서, 시청에서 연수를 받았어요, 교통에 대해서.

그래서 미추홀이랑 계양구랑 부평구 저희가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동구는 아직 안 돼서 수업을 못 하고 있어요.

○기획총무위원장 윤재실 그래서 이것을 그런 교통공원이나 직접 가야지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애들이 학교 교내에서 다니면서 그림으로도 다 볼 수 있게 그렇게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 방법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좀 해 줘야겠다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유치원 원장님들 안 계시지만 잘 보고 왔죠.

○인천중부녹색어머니회장 김윤정 그런데 중국하고 저희 한국하고 수업하는 내용 그런 수준 같은 게, 혹시 보셨나요?

○기획총무위원장 윤재실 중국은 굉장히 규칙이 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간 데는 유치원이잖아요, 유치원 갔었거든요.

초등학교는 사실 방학에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한 작품이라든지 작품 전시라든지 그다음에 학교의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선생님들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주로 들었고 유치원은 저희가 직접 수업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나라 아이들은 외부에서 사람이 가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중국 아이들은 외부에서 사람이 뒤에 들어 왔는데도 집중을 선생님들한테 쫓 해 가지고 하는데 그게 좋은 것도 있고 너무 애들을...

○위원장직무대리 설영호 아니 저희는 그렇게 지내지 않았나요?

저희 어렸을 때 누가 오면 그냥 집중했는데 우리는 그런 경지는 지나가고 이제 아주 자연스럽게 하여간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히 집중력이 뛰어났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네요.

○기획총무위원장 윤재실 잠자리 같은 것도 제가, 어린이집을 가보면 애들이 놀다 그냥 자잖아요.

그런데 중국에는, 아까도 보셨죠?

○인천중부족색어머니회장 김윤정 침대...

○기획총무위원장 윤재실 침대가 아이들한테 하나에 하나씩 침대가 쫓 되어 있더라고요.

○서림초등학교교장 이정자 시설이 저희보다 더 좋네요.

○기획총무위원장 윤재실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서림초등학교교장 이정자 그러니까요.

- 기획총무위원장 윤재실 아까 큰 운동장 보셨죠?
그게 초등학교 운동이에요.
- 인천중부족색어머니회장 김윤정 학교가 커서 그런가 봐요.
- 기획총무위원장 윤재실 그다음에 강당 보셨죠?
- 서림초등학교교장 이정자 예.
- 기획총무위원장 윤재실 그게 초등학교 강당이에요, 어마어마해요.
- 서림초등학교교장 이정자 중국 내에서 최상위에 있는 시설이죠?
그게 보통은 아닐 것 아니에요?
- 기획총무위원장 윤재실 그러니까 이게 시범초등학교, 시범이잖아요.
앞으로 이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 서림초등학교교장 이정자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뀐다는 것이죠.
- 기획총무위원장 윤재실 예.
- 인천중부족색어머니회장 김윤정 그러면 저번에 가시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과 이제, 갔다 오셨으니 학교 동구에 있는 학교 아이들하고 교류를 해서 동구에서 보낸다거나 아니면 그쪽에서 애들이 이쪽으로 와서 같이 견학을 한다거나 이제 그렇게 연관이 될 수가 있는 것인지?
- 기획총무위원장 윤재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홈스테이로 하고.
- 서림초등학교교장 이정자 첫 번째로...
- 기획총무위원장 윤재실 그다음에 그리고 또 국제교류활동을 해 갖고 아이들을 이렇게 대표, 한 번에 다 보낼 수는 없으니 몇 명씩 이렇게 선출해 갖고 한꺼번에, 이뤄서 갔다 오는 이런 프로그램을 잡을 수 있도록.
그런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 인천중부족색어머니회장 김윤정 실현가능성은 있는 것이죠?
- 기획총무위원장 윤재실 있는 것이죠, 마음만 먹으면 있는 것이죠.
마음을 안 먹으니까 그런 것이지.
- 서림초등학교교장 이정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예산을 투입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애들이 조금 더 내고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 기획총무위원장 윤재실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얘기했지만 직접비는 지금 규제가 완화를 할 수가 없어요.
- 서림초등학교교장 이정자 예, 알아요. 간접비.
- 기획총무위원장 윤재실 하지만 간접비는 규제 완화되는 것과 상관없이 과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이죠.
학교에서 사업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 과에서 직접 사업을.
- 서림초등학교교장 이정자 과에서 애들을 이렇게 몇 명 서림 몇 명, 만석 몇 명

이런 식으로?

○기획총무위원장 윤재실 그렇겠죠.

그 아이한테 직접 이렇게 학교의 대표로 하든지 그리고 이것 외국어 같은 것 만약에 만석초등학교에서는 영어하고 송현초등학교에서는 뭐 하고 무슨 뭐 이렇게 할 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강사님들을, 강사를 섭외해서 보내주고 강사에 대한 강사료를 구청에서 하고.

○인천중부녹색어머니회장 김운정 중국어를 해야 되는 데 교류를 저희가 중국으로 하니까.

○서림초등학교교장 이정자 동구청에서는 가외의 일이 생기는 것이네요. 그렇죠? 여태까지 하지 않았던 일이 또 가외로 생기시니까.

○기획총무위원장 윤재실 그러니까 직접 해야 되니까 일인 것이죠.

○서림초등학교교장 이정자 일이 또, 그러니까 내가 하지 않았던 다른 일이 또 생기시는 것이잖아요?

○기획총무위원장 윤재실 그렇죠.

그러니까 지원금만 내려 보낼 수 있는데 이것 지원금을 내려 보내는 게 아니라 실무를 직접 해야 되는 것이죠.

○서림초등학교교장 이정자 그렇죠.

○기획총무위원장 윤재실 그러니까 직접 사업이 되는 것이죠.

○동산중학교교장 이선희 이제 앞으로는 방과 전은 학교에서 책임을 지고 방과 후는 구나 지역단체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인 1약기로 손쉽게 그냥 학교에 이렇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게 지속력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센터를 딱 만들고 거기서 방과 후에 아이들이 어떠한 약기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서 계속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초·중 연계가 되면서 뭔가 하나 그래도 내가 동구에 있으면서 이 약기를 배웠다.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정해진 시스템 속에서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이 정도 소화가 될 것 같고 조금 장기적으로는 더 큰 그림들을 그려주셔서 학교가 적고 아이들이 적은 강점을 활용하면 효과가 극대화되잖아요.

○기획총무위원장 윤재실 그럼요.

○동산중학교교장 이선희 장점으로 났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적십자사봉사회동구지회장 박양근 그런데 지역아동센터가 제가 알기로는 일곱 군데가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규모가 약 20명인데도 있고 약 30명인데도 있고 그런데 이제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보니까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습에 대한 어떤 그런 것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조금 더 특화된 사업으로 해서 하면은 그래도

좀 나올 듯싶어요.

동구가 지금 청장님 말씀하시는데 아동친화도시, 친화도시 하시는데 저도 지금 저희 아이가 3명인데 동구에서 나고 자라고 대학교까지 다 갔어요.

여기 서림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계신데 저희 애들 셋이서 서림초등학교를 다 나왔어요.

그런데 요즘에 초등학교 교육 시스템이 어떻게 됐는지는 졸업을 한지 오래돼서 어떤지는 모르는데 제가 동구에서 아이들을 키워 봤을 적에 느낀점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아이들이 보는 시야가 너무 좁았어요.

그래서 꿈을 꾸려야 어떤 꿈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학부모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구 학교 내에서만 경쟁하고 그 안에 시스템에서만 하다 보니 다른 지역, 하다못해 인천에서도 미추홀구나 연수구나 거기하고 비교하기 불가하고 더 나아가면 경쟁 상대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기 문화체험 홈스테이도 있듯이 동구 아이들한테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보면 거기에서 꿈을 꿀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나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아이 셋을 키우다 보니까 자기의 위치를 정확히 몰라요.

그 학교 내에서는 탑이에요, 탑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게 탑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착오에 빠졌기 때문에 동구가 교육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여건에서 굉장히 낙후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밖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동구 아이들한테 좀 많은 것을 보고 다른 것도 비교를 해 보고 그렇게 넓히고 그런 환경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저는 제 하는 일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대하는 아이들이 저소득 취약계층 아이들을 많이 상대를 해요.

그러니까 기존에 계신 분들도 저희가 봤을 때는 교육 여건이 썩 좋은 여건은 아닌데 취약계층 아이들을 보면 진짜 굉장히 많이 열악해요.

그랬을 때 제가 좀 위원님들한테 건의 드리고 싶은 게 이런 어떠한 사업이 이뤄지면 되도록이면 취약계층이나 한부모가정이나 이런 아이들을 조금 배려를 해주셨으면 그랬으면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동구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기획총무위원장 윤재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저도 의회에 있는 동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것 없으시면 잘 갔다 왔다고 칭찬이라도.

○서림초등학교교장 이정자 예, 너무 잘 다녀오셨어요.

○동산중학교교장 이선희 결론을 이렇게 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시작을 했으니까 동구청장님하고 계속 의논들을 하시면서 학교에 실질적인 게 올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윤재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설영호 혹시 더 궁금한 것 없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직무대리 설영호 사실 저희가 어떤 결과를 이렇게 여쭙보거나 아니면 질의하는 게 더 궁금한 부분도 있지만 또 내심 그렇게 다녀오신 분들이 지금 우리 위원장님처럼 결과보고를 잘 해 주시면 그런 것들이 후에 어떤 자양분이 돼서 조금 더 나은 길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열심히 해 주시고 설명을 잘 해 주신 우리 윤재실 기획총무위원장님께 큰 박수 한 번 부탁드립니다.

(박수)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면 질의사항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좋은 질의해 주시고 좋은 말씀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 너무 감사하고요.

아울러서 한 가지 덧붙여서 우리 위원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우리 동구의회에서 위원님들께 말씀하신 모든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주시고 또 추후에 저희들의 질문에서 빠진 게 있다고 하면 꼼꼼히 한 번 잘 챙기셔서 다음 출장에 보탬이 될 수 있고 그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윤재실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언제든지 저희들을 불러주시면 가서 저희가 알고 있는 한 성심성의껏 열심히 다 말씀드리고 함께 갈 수 있는, 찾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워 마시고 불러주시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설영호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모두 마치겠고요.

잘 다녀오신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그다음에 우리 담당 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큰 박수 한번 보내주기 바랍니다.

(박수)

(14시40분 폐회)

○출석위원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기획총무위원장 윤재실

인천대학교정치외교학교교수 박요한

동산중학교교장 이선희

서림초등학교교장 이정자

금창동주민자치위원장 설영호

인천중부녹색어머니회장 김윤정

대한적십자봉사회동구지회장 박양근